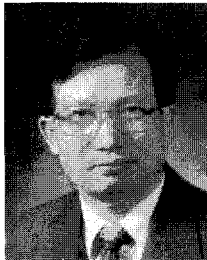




제관업계



김 성 우
한일제관(주) 상무이사

원가절감 위한 공동기술 투자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국내 제관업계는 생존을 위한 힘든 행로를 걸어 왔으며, 우리가 맞이하는 새해의 시대적, 경제적 환경은 더 많은 도전과 땀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새해에는 우리 업계가 관련 산업과의 진정한 협력과 동반관계를 통하여 이 어려운 난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금속 캔은 최근 국, 내외의 시장에서 대체용기인 플라스틱 용기(페트병)등의 급신장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성장이 위축되거나 감소되는 추세로, 제관업계가 긴장하여 주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고 일본을 비롯하여 대응용기가 개발, 시판되고 있지만, 아직도 금속용기는 여타 식품용기에 비하여 밀봉성과 차단성 및 내열성이 우수하여 장기보존에 적합하고, 재 밀봉성을 제외한 휴대 및 사용상의 편리한 점과 다채로운 인쇄에 의한 디자인과 고속 작업성 면에서 가장 신뢰성이 있는 식품용기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금속 캔(맥주를 포함한 식, 음료용 캔 기준)의 수량은 최근 5년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유럽은 신장세)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아울러 국내 제관 산업도 1995년도 총 66억 캔(에어졸 캔 포함)을 피크로 하여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감소된 후 1999년부터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1995년 수준을 10% 이상 밀돌고 있으며, 그간 증설이 억제되었음에도 전반적인 과잉공급, 대체용기(PET병)의

제관업계

시장침투와 거래 선의 가격인하 요구 등으로 채산성의 악화여건이 지속되어, 그간 그룹 내 M&A로 시작된 구조조정이 경쟁회사나 관련 협력회사에 의한 인수 가능성이 예상되어 제관업계 재편의 서막을 예고하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2002년도 월트 칩과 아시안 게임, 양대 선거의 일부 특수가 기대되지만 외국 유명 브랜드 외에 내국 브랜드 맥주와 식, 음료에 파급되는 긍정적인 판매증가효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간 GDP 증가율 수준에서 평균적인 성장율이 머물러 왔음을 감안할 때, 식, 음료제품에 히트상품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소비심리 위축현상으로 기대이하의 어려운 한해가 될 수도 있으리라 보여진다.

공급측면에서는 현재 총량기준으로 공급과잉인 상황이므로 업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생산라인의 효율화와 가동을 향상을 위하여 현 노후 생산설비의 폐기나 가동중단이 없는 한, 성수기의 특수 관종을 제외하면 공급상의 애로는 총량적인 면에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며, 개발투자를 제외한 추가 증설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수급상의 문제보다는 채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문제는, 그 동안 원재료 공급업체들과 협력하여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위한 지구대책이 긴요한 시점일 것이다

기술개발은 경량화를 포함한 원가절감과 세계시장에서의 품질 경쟁력확보를 위한 응용기술 노우하우 축적, HACCP에 대비한 위해 요소 예방 대책, 환경호르몬은 현 검출량이 전혀 문제시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심리적 민감성을 감안, 소재개발을 병행한 원천적 예방대책은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펠트병의 장점으로 주목되는 용기의 패션화(Shaped can)와 재 밀봉기능에 대한 연구 개발과 기타 Embossing, Textured printing, 개관성 보온, 온도감지 기능인쇄, 판촉 기능성 뚜껑을 포함한 고급차별화 전략 등 상용화 과제는 많지만 그 중 현재 국내 제관기술수준과 국제협력관계를 고려하면, 기술습득이 어려워서 불가한 사안보다는 개발투자에 대한 공동협력과 투자수익에 대한 보상원칙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 주된 장애요인으로 본다.

그러나 대체포장용기(PET)가 재 밀봉성과 패션 디자인의 강점을 부각하며 금속



제관업계

캔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 단조로운 캔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킬 미학적인 인쇄와 금속용기 외형적 변화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국제적 협력과 분담(알루미늄, 스틸 공급회사)을 통한 개발 투자를 추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제관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통하여 발전에 대한 과제와 장애요인을 위와 같이 알아보았으며 그 개선방향에 대한 원론적 차원의 요지는 먼저, 제관업체 자체의 장기적인 저성장, 저마진의 국제경쟁에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배양하는데 주력하여 질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차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위축된 금속 캔 시장을 유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제관업체와 수요 고객업체 간에 동반자로서 진정한 상생의 관계가 긴요하며 그간 가격 인하요인이나 제관업체의 채산성을 감안치 않은 무리한 가격인하위주의 거래관행 보다는 원가절감 등을 위한 기술개발투자에 공동참여하고, 투자수익을 균등하게 공유하며 선 개발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개발의욕을 고취시키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ko

제대백업계

특수 통한 성장 예상

백화점등 유통업체가 주 거래선이 종이 쇼핑백 업계의 2002년 전망에 대해 언급함에 있어 가장 핵심은 과연 2002년 월드컵 특수를 어떻게 매출신장에 연결 할 수 있느냐에 관건이 있다 하겠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꾸준히 늘면서 주요 백화점의 최근 매출이 작년 동기에 비해 14%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당분간 12%의